



영암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

대당 500만원씩 총 4대에 2천만원 지원

영암군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4대이며 오는 3월 4부터 8일까지 5일간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 및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시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차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영암군 홈페이지 공공문 참조)를 작성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자기용 유상운송 허가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영암군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 출신 작가와 밴드, '사회통합' 기원 전시회 참여

호남권역재활병원 어울림 전 개막…장애인·비장애인 참여



화순 출신 작가들과 공연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에 함께 했다.

화순 출신 최은숙 작가 등은 그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올해 4년째를 맞이한 '호남권역재활병원 어울림 전(展)'에 참여했다.

어울림 전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주최하고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한 전시회로 장애인 작가 6명과 비장애인 작가 4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화순 출신인 최은숙 작가는 화순군의 군화인 국화를 소재로 한 작품 화순국화를 선보였다.

19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 식전 공연에는 화순 지역에 시는 전직 공무

원, 음악 교사, 이장 등이 멤버로 활동하는 밴드 '화순 패밀리'가 멋진 공연을 펼쳤다. 화순 패밀리 멤버들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을 노래하자며 재능기부 공연을 위해 결성됐다.

이날 식전 공연에서 밴드는 친숙한 1970년~1980년대 대중가요 공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어울림 전은 광주시 북구에 있는 호남권역재활병원 1층 힐링갤러리에서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한편, 구충곤 화순군수와 군 관계자 10여 명은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출신 최은숙 작가의 작품 활동과 밴드 '화순 패밀리'의 재능 기부 활동을 응원했다.

군 관계자는 "광주에서 열리는 전시회지만, 우리 지역 예술가와 주민 밴드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고 동참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그림과 음악을 통해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방치 지하수 관정 폐공 총력

장흥군은 군민과 함께 실천할 3대 역점과제로 쓰레기 분리 배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방지 관정 폐공처리를 선정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노후 슬레이

트 지붕 철거는 환경관리과, 방지 관정 폐공처리는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맡아 올해 총력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질 보존을 위하여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폐공 할 계획이다.

폐공대상은 수질불량, 수랑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이 해당된다.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섬마을 치매타!파!' 운영

9월까지 도서지역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육·치매선별검사 등



여수시가 도서지역 어르신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섬마을 치매타!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2개 도서지역 경로당 60개소, 60세 이상 어르신 3148명이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섬마을 치매타!파!'는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전문 직원 6명이 치매관리에 취약한 도서지역 어르신을 찾아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청정지역 사수위해 구제역 방역 '총력'

진도군이 구제역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 방역시설·방역대책본부 24시간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우제류 가축 1만 6,101마리(소 2,550마리, 돼지 1만 6,178마리, 염소 1,873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24시간 비상체제 운영과 함께 관내 차량진입로 진도대교 인근에 거점소

독시설 설치, 축사·주변 진입로·축산관련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우제류 가축 1만 6,101마리(소 2,550마리, 돼지 1만 6,178마리, 염소 1,873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누락된 가축

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백신 허체 일제 검사를 통해 관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 예방접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군, 군민 건강 위한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 운영

매주 금요일 허약노인·관절염 환자 대상



담양군보건소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허약노인,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을 운

영한다고 밝혔다.

기공체조란 체내의 기를 조절해서 막힌 기혈을 원활하게 하는 근골격

계 질환과 민성질환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또한 동작을 배우는 데 관절에 무리가 없고 심신이원과 명상 호흡법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 작년에만 8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12월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진행되며 기체조 교실 외에도 한의약 양생요법과 사상체질 교육 후 한방진료와 한약제 처방도 함께 이뤄진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을 통해 군민의 자가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퇴행성 관절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천습관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